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분석

김영임, 허희영¹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¹전북과학대학 치위생과

색인 : 인식도, 치과내원환자, 치주질환

김영임: 우)570-750

익산시 신용동 344-2 원광보건대학 치위생과

Tel : 063-840-1260 (휴대폰 : 010-8824-7007)

E-Mail : kyi1327@hanmail.net

치과에 내원하는 환자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분석

색인 : 인식도, 치과 내원 환자, 치주질환

1. 서 론

구강건강이란 상병에 이환되어 있지 않고 정신작용과 사회생활에 장애가 되지 않는 치아와 악안면 구강조직기관의 상태를 의미하며¹⁾, 유전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주어진 조건 아래에서 적절한 생리적 구강기능을 나타내는 상태²⁾라고 정의할 수 있다. 구강건강은 삶의 질적

향상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하므로 타 진료 행위에 비해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³⁾.

우리나라에서 발생빈도가 높고 치아발거의 대표적인 원인이 되는 구강병은 주로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이며, 이 질환들은 지난 30년간 계속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구강건강을 증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치아우식증과 치주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된다⁴⁾. 치아우식증은 4단 치아우식예방법을 적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예방될 수 있으나 치주질환은 연령이 증가되면서 예방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⁵⁾.

치주질환이란 치주조직에 생기는 일체의 질병으로 치은출혈과 치은퇴축, 치주낭 형성 및 치조골 파괴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치아우식증과는 달리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치아주위조직의 점진적 파괴와 치아상실을 초래하는데 유병률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치유가 잘 되지 않는 만성적인 질환이다⁵⁾.

최근에는 치주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및 치료, 치주건강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불어 스스로가 치주건강에 대해 인식하고 자각하여 예방하고 치료한 치주조직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성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치주질환의 발생을 막고 치주질환자를 위한 올바른 구강보건교육을 위해 성인들의 치주질환에 대한 인식과 예방 및 관리를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지역에 위치한 치과 의료기관에 내원한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치주질환 인식도를 파악하여 구강보건 예방 및 관리를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연구대상은 전주지역에 위치한 5개 치과의원과 1개의 치과병원에 내원한 23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2008년 3월 3일부터 3월 28일까지 4주일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자료처리에 부적합한 26부를 제외한 204부를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2.2. 연구방법

치주질환인식에 관한 내용을 알아 보기위해 사용된 도구는 박⁶⁾의 도구를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설문지의 내용은 구강건강 관리습관, 치주질환 인식도, 치주조직 건강상태, 치주질환 예방관리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조사하였다.

2.3. 통계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 12.0 for window)을 이용하여 시행하였으며, 설문내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카이제곱 분포를 따르는 교차 분석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성적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성별은 남자가 43.6%, 여자가 56.4%로 나타났고, 연령은 30대가 24.0%로 가장 많았으며, 40대(22.5%), 50대 이상(21.6%)순이었다. 직업은 학생이 32.4%로 가장 높은 비율의 차지하였고, 최종학력은 고졸 38.7%, 대졸 36.3% 순이었다. 소득은 100~199만원 미만이 45.6%로 가장 많았으며, 200~299만원 24.0% 순이었다.

표 1.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특 성	구 분	빈도(N)	백분율(%)
성 별	남자	89	43.6
	여자	115	56.4
연 령	10대	34	16.7
	20대	31	15.2
	30대	49	24.0
	40대	46	22.5
	50대 이상	44	21.6
직 업	학생	66	32.4
	전문직	27	13.2
	사무직	43	21.1
	생산직	20	9.8
	서비스직	6	2.9
	자영업 기타	14 28	6.9 13.7
최종학력	중졸 이하	28	13.7
	고졸	79	38.7
	대졸	74	36.3
	대학원 이상	23	11.3
소 득	~ 99	43	21.1
	100 ~ 199	93	45.6
	200 ~ 299	49	24.0
	300 ~	19	9.3
	합계	204	100

3.2. 구강건강 관리습관

구강건강 관리습관을 파악한 결과는 <표 2>와 같다. 하루 잇솔질 평균 횟수는 성별, 흡연 유무에 따라 모두 하루 평균 2번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잇솔질 방법으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위·아래 회전하며 닦는다 43.8%, 여자는 상·하, 좌우 섞어서 닦는다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상·하, 좌우 섞어서 닦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구강관리용품사용은 성별에 따라 남자 65.2%, 여자 47.0%로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흡연 유무에 따라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2. 구강건강 관리습관

항목	구분	성별		흡연 유무		전체
		남	여	유	무	
하루 잇솔질 횟수	하루 1번	8(9.0)	7(6.1)	4(5.9)	11(8.0)	15(7.4)
	하루 2번	51(57.3)	71(68.8)	41(60.3)	81(59.6)	122(59.8)
	하루 3번	26(29.2)	29(25.2)	21(30.9)	34(25.0)	55(27.0)
	하루 4번 이상	4(5.2)	8(7.0)	2(2.9)	10(7.4)	12(5.8)
	p값	p=0.670		p=0.496		
잇솔질 방법	위·아래 회전	39(43.8)	32(27.8)	27(39.7)	44(32.4)	71(34.8)
	옆으로	14(15.7)	30(26.1)	7(14.7)	37(27.2)	44(21.6)
	상·하, 좌우 섞어서	36(40.4)	53(46.1)	34(50.0)	55(40.4)	89(43.6)
	p값	p=0.038*		p=0.022*		
구강관리용품사용	사용하지 않는다	58(65.2)	54(47.0)	41(60.3)	71(52.2)	112(54.9)
	치실	16(18.0)	40(34.8)	13(19.1)	43(31.6)	56(27.5)
	치간 칫솔	13(14.6)	11(9.6)	10(14.7)	14(10.3)	24(11.8)
	구강양치용액	2(2.2)	10(8.7)	4(5.9)	8(5.9)	12(5.8)
	p값	p=0.005*		p=0.276		

* $p<0.05$

3.3. 치주조직 건강 인식

치주조직 건강 인식은 <표3>과 같다. 치주질환 지식습득경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지식 습득경로가 없다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인터넷 43.4%로 나타났으며, 흡연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치석제거기간에 대한 인식은 성별, 흡연 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석제거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흡연유무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3. 치주조직 건강 인식

항목	구 분	성별		흡연 유무		전체
		남	여	유	무	
치주질환 지식습득 경로	신문이나 텔레비전	8(9.0)	6(5.2)	10(14.7)	4(2.9)	14(6.9)
	인터넷	31(34.8)	46(43.4)	26(38.2)	51(37.5)	77(37.7)
	치과 의사 및 치과 위생사	11(12.4)	28(24.3)	9(13.2)	30(22.1)	39(19.1)
	가족이나 주위 사람	5(8.3)	14(12.2)	6(8.8)	13(9.6)	19(9.3)
	없다	34(38.2)	21(18.3)	17(25.0)	38(27.9)	55(27.0)
	p값	p=0.005*		p=0.025*		
치석제거 기간	6개월에 한 번 정도	19(21.3)	33(28.7)	17(25.0)	35(25.7)	52(25.5)
	1년에 한 번 정도	39(43.8)	54(47.0)	28(41.2)	65(47.8)	93(45.6)
	2-3년에 한 번 정도	20(22.5)	22(19.1)	17(25.0)	25(18.4)	42(20.6)
	그 이상	6(6.7)	4(3.5)	3(4.4)	7(5.1)	10(4.9)
	평생에 한번	5(5.6)	2(1.7)	3(4.4)	4(2.9)	7(3.4)
	p값	p=0.316		p=0.783		
치석제거가 구강건강에 미치는 영향	도움이 된다	20(22.5)	39(28.9)	12(17.6)	47(34.6)	59(28.9)
영향을 주지 않는다	55(61.8)	67(58.3)	43(63.2)	79(58.1)	122(59.8)	
부작용이 크다	14(15.7)	9(7.8)	13(19.1)	10(7.4)	23(11.3)	
	p값	p=0.076		p=0.006*		

* p<0.05

3.4. 치주건강 상태

본인이 자각하고 있는 치주건강 상태는 <표 4>와 같다. 성별과 흡연 유무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주질환으로 치과 내원 시 치료 받은 방법은 성별에 따라 남자는 치석제거를 받았다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여자는 잇몸치료를 받았다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흡연 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는 치석제거를 받았다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흡연자는 잇몸치료를 받았다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표 4. 치주건강 상태

항목	구 분	성별		흡연 유무		전체
		남	여	유	무	
치주건강 상태	건강하다	15(16.9)	22(19.1)	11(16.2)	26(19.1)	37(18.1)
	보통이다	54(60.7)	68(59.1)	43(63.2)	79(58.1)	122(59.8)
	나쁜 편이다	20(22.5)	25(21.7)	14(20.6)	31(22.8)	45(22.1)
	p값	p=0.916		p=0.772		
치과 내원시 치료 받은 방법	구강검사만 했다	13(14.6)	32(27.8)	11(16.2)	34(25.0)	45(22.1)
	치석제거를 받았다	30(33.7)	29(25.2)	22(32.4)	37(27.2)	59(28.9)
	잇몸치료를 받았다	21(23.6)	34(29.6)	16(23.5)	39(28.7)	55(27.0)
	잇몸수술을 받았다	7(7.9)	1(0.9)	7(10.3)	1(0.7)	8(3.9)
	내원한적 없다	18(20.2)	19(16.5)	12(17.6)	25(18.4)	37(18.1)

	p값	p=0.014*	p=0.011*
--	----	----------	----------

* p<0.05

3.5. 치주건강 예방관리 방법에 대한 인지도

치주건강 예방관리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표 5>와 같다.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처치법에 대해서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가 59.8%로 가장 높았고,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둔다 15.2%, 잇솔질을 자주 한다 14.2% 순이었다. 현재의 잇몸관리 방법에는 잇솔질을 자주한다가 34.3%로 가장 높았다. 잇몸관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잇솔질을 올바르게 하고 자주한다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정기적으로 치과에 간다 28.4%, 정기적인 치석제거를 한다가 13.7% 순이었다. 치주질환 예방교육 참여여부에는 참여하겠다 63.2%, 적극 참여하겠다 23.0%, 참여하지 않겠다 13.8% 순이었다.

표 5. 치주건강 예방관리 방법에 대한 인지도

항목	구 분	빈도(N)	백분율(%)
잇몸이 붓고 피가 날 때 행동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둔다	31	15.2
	잇솔질을 자주 한다	30	14.7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	122	59.8
	잇몸 약을 복용한다	21	10.3
현재 잇몸관리를 하고 있는 방법	정기적인 치석제거	36	17.6
	잇솔질을 자주한다	70	34.3
	음식을 골고루 섭취한다	33	16.2
	정기적인 치과 검진한다	18	8.9
	별로 관심없다	47	23.0
잇몸관리에 가장 좋은 방법	정기적인 치석제거	28	13.7
	잇솔질을 올바르게 자주한다	92	45.1
	정기적으로 치과에 간다	58	28.4
	잇몸병 예방약을 복용한다	5	2.5
주기적인 예방교육 여부	잇몸관리 전용치약을 사용한다	11	5.4
	적극 참여하겠다	47	23.0
	참여하겠다	129	63.2
	참여하지 않겠다	28	13.8
합 계		204	100

4. 총괄 및 고안

대부분의 치주질환 환자들의 경우 본인의 치주 건강상태가 보통이하로 진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예방과 정기적인 구강검진 보다는 발병 후 치료를 받게 되면서부터 치주질환에 관심을 갖게 되고 구강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주건강에 있어서는 치주질환의 예방과 치료 및 유지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치주병변이 개선된 후에도 계속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치료완료 후에도 높은 재발의 위험이 있어 결국 치아 상실의 주된 원인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치주치료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인은 치주치료 후 유지관리를 실천하는 것이 치주치료를 성공적인 열쇠이며 치아상실로 인한 고통을 덜 받게 된다⁷⁾.

본 연구는 전주지역에 위치한 5개 치과의원과 1개의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치주질환 인식도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구강건강 관리습관을 살펴보기 위한 조사항목으로 하루 평균 잇솔질 횟수가 남, 녀 모두 하루 2번으로 박⁶⁾의 연구와 동일했으나, 이 등⁸⁾의 연구에서는 하루 평균 2번 이상으로 보다 낮게 나타났다. 잇솔질 방법으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위·아래 회전하며 닦는다 43.8%, 여자는 상·하, 좌우 섞어서 닦는다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흡연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상·하, 좌우 섞어서 닦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구강관리용품사용은 성별에 따라 남자 65.2%, 여자 47.0%로 모두 사용하지 않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심⁹⁾ 73.7%, 윤¹⁰⁾ 87.6% 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구강건강관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교육으로 인한 행동의 변화가 요구되며, 올바른 잇솔질 방법 및 구강건강용품 사용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치주조직 건강인식에 대해 살펴보기 위한 치주 질환 지식습득경로는 성별에 따라 남자는 지식습득경로가 없다는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인터넷을 통해 43.4%로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치아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박⁶⁾의 연구에서는 신문이나 텔레비전 광고를 통해 지식습득 경로가 35.9%로 나타났다. 과거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관심도가 높은 반면 요즘 인터넷의 대중화로 인한 인터넷을 통한 많은 정보를 보급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흡연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 비흡연자 모두 텔레비전이나 인터넷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본인이 인지하는 치주건강 상태는 성별과 흡연 유무에 따른 구분에 있어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치주질환으로 치과 내원시 치료 받은 방법은 성별에 따라 남자는 치석제거를 받았다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잇몸치료를 받았다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흡연 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는 치석제거를 받았다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흡연자는 잇몸치료를 받았다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단 치주건강 상태에 대한 통계적인 결과는 본인이 인지하는 것만으로 조사된 것이므로 본인의 인지도와 구강건강 검사 결과와를 비교하지 못한 것이 연구의 제한점으로 생각되며 추후 연구에서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치주건강 예방관리 방법에 대한 인지도를 살펴보면, 현재의 잇몸관리 방법에는 잇솔질을 자주한다가 34.3% 가장 높았다. 잇몸관리를 위해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잇솔질을 올바르게

하고 자주한다가 45.1%로 가장 높았으며, 이 등⁸⁾의 연구에서는 잇솔질에 대한 중요성의 강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윤¹⁰⁾의 연구에서도 치주질환 예방법으로 올바른 잇솔질이라고 응답한 환자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잇솔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환자들에게 치료 후 올바른 잇솔질 방법을 교육 시켜 지속적으로 치주건강을 유지 관리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치주질환 예방교육 참여여부에는 참여하겠다 63.2%, 적극 참여하겠다 23.0%로 박⁶⁾의 연구에서와 같이 참여하겠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구강보건교육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치주질환 관리의 필요성 및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구강보건교육 개발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되며 또한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환자가 구강건강에 대한 관심과 치과의 정기적인 관리를 받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치주질환자에 대한 예방과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를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며 구강보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도 시급하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치과의료기관에 내원한 성인 환자들을 대상으로 치주질환 인식도를 알아보기 위해 전지역에 위치한 5개 치과의원과 1개의 치과병원에 내원한 환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1) 성별에 따라 잇솔질 방법을 살펴보면 남자는 위·아래 회전하며 닦는다가 43.8%, 여자는 상·하, 좌우 섞어서 닦는다가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흡연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50.0%), 비흡연자(40.4%) 모두 상·하, 좌우 섞어서 닦는다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성별과 흡연유무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 2) 치주질환 지식습득경로는 남자는 지식습득경로가 없다가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자는 인터넷이 43.4%이며, 흡연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38.2%) 비흡연자(37.5%)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 3) 치주질환으로 치과 내원 시 치료 받은 방법은 남자는 치석제거를 받았다가 33.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자는 잇몸치료를 받았다가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흡연 유무에 따라서는 흡연자는 치석제거를 받았다가 32.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흡연자는 잇몸치료를 받았다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 4) 치주질환 예방교육 참여여부에는 참여하겠다 63.2%, 적극 참여하겠다 23.0%, 참여하지 않겠다 13.8% 순이었다.

6. 참고문헌

1. 김종배, 최유진, 문혁수 등. 공중구강보건학. 4판. 서울:고문사;2004:3, 98-105.
2. 임병철. 구강보건학. 청구문화사;1999:13.
3. 윤은경. 내원환자의 구강건강 관리에 관한 인식도 조사(치주질환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4. 강현경, 윤영숙, 박정희 외 3인. 치주질환자에 대한 유지관리의 효과.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5;29(3):271-280.
5. 김종배, 백대일, 장기완. 구강보건교육학. 4판. 서울:고문사;1993:23-29.
6. 박인숙. 한국 성인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조사연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7. 신원창, 강성귀, 김동기. 비외과적 방법에 의한 치주질환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대한구강보건학회지 2001;25(2):109-121.
8. 이선미, 김은주. 치과내원 환자들의 치주조직건강인식도 분석. 한국치위생과학회지 2007;7(4):219-224.
9. 심지은. 산업체 근로자의 치주관리의 필요성에 관한 조사. 조선대학교 환경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10. 윤정안. 서울, 경기지역 주민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대한 조사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11. 박영남. 성인의 치주질환과 치면세마처치 인식도 및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치과연구지 2006;59(1):39-53.
12. 조명숙. 일부지역 주민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조사(대구시 중심), 한국위생과학회지 1996;2(1~2):111-133.
13. 최복희. 일부 근로자들의 치주질환 인식도에 관한 조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Abstract

A analysis on the Patient ' s awareness of
periodontal diseases.

Young-im Kim and Hee-young Heo¹

Department of Dental Hygiene, Wonkwang Health Science College

¹*Department of Dental Hygiene, Jeonbuk Science College*

Keywords : awareness, dental institution patients, periodontal diseas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wareness of adult patients visiting dental clinics about periodontal diseas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204 patients who paid a visit to five dental clinics and a dental hospital in the region of Jeonju. After a survey was conducted, the results were obtained as follows:

1. With regard to toothbrushing method, the most of the male patients(43.8%) brushed their teeth by rolling the toothbrushes up and down, and the most of the female patients(46.1%) did that both up and down and right and left. As to the influence of smoking, the largest number of the smokers(50.0%) and nonsmokers(40.4%) brushed their teeth both up and down and right and left.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shown by gender and smoking($p<0.05$).

2. As for knowledge acquisition route on periodontal diseases by gender, there was no way for the men(38.2%) to get the information, and the largest number of the women (43.4%) acquired the information through the internet. With respect to smoking, the largest numbers of the smokers(38.2%) and nonsmokers(37.5%) got the information by the internet,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p<0.05$).

3. Concerning treatment method of periodontal diseases provided by the dental clinic, the largest number of the men(33.7%) got their teeth scaled, and the

greatest group of the women(29.6%) had their gums treated. The treatment method mad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gender ($p<0.05$). Regarding smoking, the largest group of the smokers(32.4%) had their teeth scaled, and the largest number of the nonsmokers(28.7%) got their gums treated.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made statistically by smoking ($p<0.05$).

4. As to instruction on the prevention of periodontal diseases, the largest group(63.2%) intended to take that. The second (23.0%) was eager to do it, and the third(13.8%) was unwilling to do it.